

地上神仙思想의 現代的 意義

李 恒 寧 *

目 次

I. 머리말	3. 儒敎의 理想人像
II. 三元的 一元論	4. 佛敎의 理想人像
1. 一元論과 多元論	5. 基督敎의 理想人像
2. 二元論	6. 이슬람敎의 理想人像
3. 二元的 一元論	7. 仙道의 理想人像
4. 三元的 一元論	IV. 神仙이란 무엇인가
5. 檀君古記	1. 神仙思想의 原流
6. 天符經	2. 韓國의 神仙思想
7. 典經	3. 甌山의 神仙思想
III. 地上人間의 여러 形態	V. 地上神仙思想의 現代的 意義
1. 普通人	1. 人間眞面目의 發揮
2. 理想的인 人間	2. 現實과 理想의 調和

I . 머리말

대순진리회의 목적의 하나인 무자기 - 정신개벽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고찰한 바가 있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의 목적에는 그 외에 또 지상신선실현 - 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 - 세계개벽이 있다. 그런데 무자기의 정신개벽을 이루면 또 신선이 되는 것이요 신선이 되면 사는 곳이 곧 천국이 되므로 무자기와 지상신선과 지상천국건설은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신개벽을 이루면 인간이 개조되는 것이요 인간이 개조되면 그 인간들이

* 홍익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사는 세계가 개혁될 것이니 정신이나 인간이나 세계가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결국은 하나로 돌아가는 같은 것을 왜 구태어 갈라서 말했는가? 대순진리회의 종지인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도 사실은 꼭 같은 상태를 말한다. 음양이 합덕되면 신인이 조화될 것이요 신인이 조화되면 해원상생 될 것이요 해원상생되면 도통진경에 이르니 이 넷은 결국 같은 말이다.

대순진리회의 신조인 사강령과 삼요체도 결국 같은 말이다. 안심하면 안신이 되고 안심안신되면 경천수도에 이르게 된다.

또 성경신도 정성을 다하면 공경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면 신의가 생긴다. 성경신이 결국 하나를 말한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종지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신조에서 강령은 네 가지로 요체는 세 가지로 말한 것은 잠깐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서 그 정체를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느 동상을 구경할 때에 정면에서 보면 다 보는 것이지만 다시 옆으로 가서 보고 또 뒤로 가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같은 동상이지만 한군데서 보는 것보다 여러 군데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다. 종지를 네 가지로 갈라보고 신조를 4강령과 3요체로 갈라보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무자기 - 정신개혁을 논하였다면 그 속에서 자연히 지상신선실현 - 인간개조 지상천국실현 - 세계개혁을 아울러 논하였는데 또 다시 따로 인간개조와 세계개혁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이것을 논하는 것은 좀더 정확하게 알자는 것이다. 같은 동상이라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로 가서 보는 데에서 그 동상을 더욱 잘 알게 된다. 정신개혁 인간개조 세계개혁이 결국 하나이지만 정신개혁은 아주 가까운데서 보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가운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다. 생물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로도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정신이 그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람이 지금 사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우선 그 정신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정신에 그치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는 정신과 더불어 육체를 가진 인간의 측면에서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볼 수가 있다. 또 타인과 아무 관계도 없는 개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가 혼자가 아니고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다. 사람은 자라나면서 이웃과 상종하고 사회와 관계를 위한다. 말하자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 인간을 하나로 따로 떼어서 볼 수도 있고 그 인간의 집단을 한데 묶어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서 떨어져서 존재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늘 집단적으로만 뭉쳐 있는 것도 아니다. 정신이 인간의 마음 속 즉 가장 가운데 있고 인간의 증추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 정신과 육체를 합친 복합체로서의 인간도 그것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

나아가 집단을 이루는 인간관계도 정신이나 육체보다는 조금 멀으나 그러나 바로 우리의 가까이 있다. 그것이 사회요 세계다. 그러므로 정신과 인간과 세계가 한데 뭉쳐서 사실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 동상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듯이 우리 인간도 속에서부터 보고 또 겉으로부터 보고 또 아주 가까이 보고 조금 떨어져 보면 그 정체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든지 결국은 하나의 실체가 있을 뿐이다. 대순진리회가 목적으로 정신개혁 인간개조 세계개혁을 따로 들었지만 그것은 동일한 상태이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신 인간 세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동일한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으로 인하여 사물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Ⅱ. 三元的 一元論

1. 一元論과 多元論

우리가 사물을 보는 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첫째는 무엇이고 존재의 근본은 하나 뿐이요 그 하나에서 만물이 생겨났다는 생각인데 일원론(一元論)이다. 그 둘째는 무엇이고 존재하는 것은 쌍을 이루고 그 쌍에서 만물이 생긴다는 생각인데 이원론(二元論)이다. 그 셋째는 무엇이고 존재하는 것은 셋이 기본이고 그 셋에서 만물이 생겨난다는 생각인데 삼원론(三元論)이다. 일원론과 이원론과 삼원론 외에 사원론(四元論) 오원론(五元論) 육원론(六元論) 칠원론(七元論) 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일원론 이외의 사상은 모두 다원론(多元論)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일원론, 이원론, 삼원론이다.

첫째 일원론은 유일(唯一)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이나 이슬람의 유일신(唯一神)사상이 그 대표적이다. 둘째 이원론은 중국의 주역(周易)사상과 그리스의 관념론(觀念論) 철학이 그 대표적이다. 중국 주역사상은 음양론(陰陽論)이요 그리스의 관념론 철학은 변증법(辨證法)이다.

셋째 삼원론 중국의 노자(老子)의 충기(沖氣 - 沖자는 화할 총자인데 沖 또는 中으로도 쓴다)의 사상과 한국의 삼극(三極)사상이 그 대표적이다.

일원론 이원론 삼원론은 대단히 다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같은 것인데 다만 그 보는 각도가 다를 뿐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유일신 여호와를 믿고 그 여호와는 창조신으로 만물을 그가 창조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여호와를 믿는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하느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와 성령 또는 성신(聖靈, 聖神)이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룬다고 하니 엄격히 따지면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은 삼위(三位)를 인정하는데서 철저한 유일신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유일신으로 알라를 믿는 이슬람에서는 오직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요 예수도 신이 아닌 하느님의 사도의 한 사람이요 마호멜도 신이 아닌 하느님의 사도의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네들만이 유일신교라고 한다. 그러나 이슬람의 교조 마호멜은 비록 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신과 같이 신앙되고 있어 그의 언행은 곧 신의 언행처럼 신성시되고 있으니

이슬람만이 꼭 유일신 종교라고 할 수는 없다.

2. 二元論

중국의 주역사상은 음양 이원론이지만 그 음양이 발생한 시초는 태극(太極)이라고 하니 음양이원론도 그 관점을 태극에 두면 일원론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이슬람의 일원론은 유일신이 직접 만물을 창조하였지마는 중국의 태극사상은 태극자체가 만물을 만든 것이 아니고 태극을 이루는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조화하는 가운데 만물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주역은 역시 이원론의 성격이 강하다. 또 하나의 이원론인 그리스 사상에 있어서는 플라톤(Platon)이 관념(觀念-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現象界), 이성(理性)과 감성(感性), 가치(價値)와 존재(存在), 정신(精神)과 육체(肉體)를 준별한 점에서 철저한 이원론이다. 그러나 같은 이원론이라도 중국의 이원론 사상과 그리스의 이원론 사상은 그 전개과정이 다르다. 주역에서는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는 반대적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보적(相補的) 또는 상생적(相生的) 존재다. 음양은 결코 반대개념이 아니다. 동반(同伴)개념이다. 그러므로 사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음양이 조화적으로 공존하여야 하고 음양이 불균형을 이루면 불완전한 존재이거나 병든 존재가 되고 만다. 이에 대해서 그리스의 이원론 사상은 어디까지든지 모든 존재는 대립적(對立的) 상대적(相對的) 또는 상극적(相剋的) 존재다. 여기에서 변증법(辨證法) 사상이 나온다. 변증법(Dialectics)이라는 말은 그리스의 디아렉키케(dialekike)라는 말에 유래하는데 원래는 문답법(問答法) 정도의 의미였으나 소크라테스(Socrates)가 이것을 인식론(認識論)으로 발전시켰고 플라톤에 의하여 변증법으로 심화되었다. 이 변증법은 헤겔(Hegel)에 의하여 대성되었는데 그는 변증법을 인식과 존재에 있어서의 동적발전법칙(動的發展法則)으로 파악했다. 그는 만물은 정(正-these) 반(反-antithese) 합(合-synthese)이라고 하는 삼단계를 거쳐 발전하여 나간다고 하였는데 변증의 핵심은 부정(否定)에 있다. 어떤 존재(正)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과 모순되는 반대적 존재(反)가 있는데 이들은 그 성격이 모순이고 반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 그 중의 하나는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정되었다고 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

니고 부정된 것은 또 다른 반대되는 것에 의하여 다시 부정되어 종합(綜合)으로 가고 그 종합은 다시 부정되어 이와 같은 부정의 연속으로 사물이 발전한다고 하였다. 헤겔은 사물의 시원을 정신으로 보았지만 그와 같은 관념론(觀念論)에 대하여 마르크스(Marx)는 유물론(唯物論)적 변증법을 적용하여 역사를 반대계급의 계급투쟁의 역사로 파악하였다.

같은 이원론이지만 중국의 음양 사상은 둘 사이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대해서 그리스의 변증법사상은 둘 사이를 부정적으로 보는데서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둘이 다 같이 이원론에는 틀림없다.

3. 二元的 一元論

주역의 음양적 이원론에 대해서 성리학(性理學)은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주장한다. 성리학의 이기이원론은 이를 주로 하는 주리파(主理派)와 기를 주로하는 주기파(主氣派)의 대립은 있을지언정 이원론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적인 이기이원론을 일원론으로 환원시켜 말하자면 이원적 일원론을 주장한 학자가 있으니 그 분이 바로 율곡 이이(栗谷 李珣)이다.

율곡은 주자(朱子)나 퇴계 이황(退溪 李滉)의 이기이원설(理氣二元說)을 이원적 일원론(二元的 一元論)으로 정리했다. 이와 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가 먼저 있느냐 또는 기가 먼저 있느냐 하는 존재론(存在論)적 문제와 이가 더 귀하냐 기가 더 귀하냐의 가치론(價值論)적 문제가 늘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율곡은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제창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는 이는 기의 주재(主宰)요 기는 이가 타는(乘) 곳이다. 이가 아니면 기의 근저할 곳이 없고 기가 아니면 이의 의착할 곳이 없다. 이미 이물(二物)이 아니요 또 일물(一物)도 아니다. 일물이 아닌 고로 일이이(一而二)요 이물(二物)이 아닌 고로 이이일(二而一)이다. 일물이 아니란 무엇을 말함인가? 이기는 서로 떠나지 못할지라도 묘합(妙合)한 가운데 이는 스스로 이, 기는 스스로 기로서 서로 협잡(挾雜)하지 아니한다. 고로 일물이 아니다. 이물이 아니라 함은 무엇을 말함인가? 비록 이는 스스로 이, 기는 스스로 기일지라도 혼륜무간(渾淪無間)하매 선후가 없고 이합이 없으므로(無先後 無離

합) 그 이물됨을 볼 수 없다. 고로 이물이 아니다. 이런고로 동정이 무단(動靜無端)이요 음양이 무시(陰陽無始)이다. 이는 무시이다. 고로 기도 무시이다(答成浩原書)하였다. 또 율곡은 이는 무형이요 기는 유형이며 이는 무위(無爲)이고 기는 유위(有爲)이다.

무형무위이면서 유형유위의 주재자(主宰者)가 되는 것은 이이요 유형유위하면서 무형무위의 기재자(器材者)로 되는 것은 기이다. 이는 무형이요 기는 유위이다. 고로 기는 발동(發動)하고 이는 승재(乘宰)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통기국설이 나온다. 율곡은 무형과 유형의 차이로서 이통과 기국의 상이(相異)를 설명하고 무위와 유위의 구별로서 기발이승(氣發理乘)을 해명하고 있다. 그는 같은 글에서 「이통기국은 본체(本體) 위에서 말해야 하는데 그 본체를 떠나서 따로 유행(流行)을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사람의 성(性)이 물건의 성이 아님은 기의 국(局)이요 사람의 이(理)가 곧 물건의 이임은 이의 통(通)이다. 방원(方圓)의 기(器)는 부동(不同)하나 기중(器中)의 물은 동일(同一)하고 대소(大小)의 병(瓶)은 부동하나 병중(瓶中)의 공기는 동일하다. 기의 일본(一本)이란 이의 통(通) 때문이요 이의 만수(萬殊)한 기의 국(局) 때문이다. 본체 가운데 유행이 구유(具有)하고 유행가운데 본체가 비존(備存)된다. 이로 말미암아 추구하면 이통기국의 설이 과연 일변에 떨어질까?」 하고 자부하고 있다. 율곡의 이통기국설은 한국성리학의 커다란 산맥의 하나인데 이로 인하여 그의 이원적 일원론이 확립되었다.

율곡이 이통기국설로 이와 기의 이원적 일원론을 주장하였지마는 주역의 음양사상이나 성리학의 이기사상의 전통적 주류는 어디까지나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다.

4. 三元的 一元論

주역이나 성리학의 이원론은 일원론으로 환원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데 삼원론으로 나가면 그 삼원이 일원이라는 것을 비교적 쉽게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삼원적 일원론이 발생한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설도 삼원적 일원론의 하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원성을 중추로 하는 삼원설이요 삼위라고 하지만 일체를 보충하는 것

뿐이다. 주역이나 성리학의 이원론이 율곡과 같이 이원적 일원론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 근본은 어디까지나 이원론이다. 이에 대해서 진짜 삼원적 일원론은 삼원적 존재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삼원이 결국 일원으로 귀일한다고 본다. 하느님과 예수와 성령의 삼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실체의 기능이 삼원적이라는 것과는 다르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중심점은 하나인 하느님이요 그 하느님의 발현현상이 삼원적이라는 데에 비해서 노자 도덕경(道德經)이나 한국사상의 삼원적 일원론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본래가 다 각각 따로 실재하지만 그 본체는 하나라는 점이 다르다. 즉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은 어디까지나 유일신인 하느님의 가치가 궁극적 중심이라면 노자의 충기(冲氣)사상이나 한국의 삼극(三極)사상은 어느 하나만이 궁극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셋이 모두 등가적(等價的)으로 궁극적 가치가 있으며 그런고로 삼원은 따로 있지만 모두 하나로 통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삼위일체설은 그 중에서도 일체가 중요하지만 노자의 충기사상이나 한국의 삼극사상의 삼원적 일원론은 삼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삼위일체설은 일체가 이질적(異質的)인 삼위로 갈라지지만 삼원적 일원론은 본래가 동질적(同質的)인 삼원이 일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삼위일체설은 모두가 이질적이지만 삼원적 일원론에서는 모두가 동질적이다.

삼원적 일원론에서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하느님은 또한 동시에 사람 가운데에도 계시다. 삼위일체설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어 예수와 성령을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과 만물은 다르지만 삼원적 일원론에서는 하느님이 땅과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곧 땅이 되고 또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하느님과 만물을 동일시한다. 그러한 삼원적 일원사상에서 보면 대순진리회의 정신·인간·세계라는 그 삼원적 목적도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원적 일원론은 일원론과 이원론을 종합한 형태다. 음양사상은 태극(1)이 음양(2)의 양의(兩儀)를 낳고 그 양의가 또 음양으로 갈라져 4상(象)이 되고 그 4상이 또 음양으로 갈라져 8괘(卦)가 되고 그 8괘가 갈라지고 어울려서 이리하여 64괘 380효(爻)가 된다. 그런데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에는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품는데 충기(冲氣)로서 화(和)한다.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冲氣以爲和)」고 하였으니 이는 주역의 음양이원론에 대해서 음양이 조화된 충기(冲氣, 中氣)를 따로 인정한데서 주역의 2원론에 대해서 3원론을 이룬다. 삼원론에서는 음기양기 충기가 하나요 천지인인 하나를 이룬다고 본다. 이러한 동양의 종합적 사상은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땅에는 인간이 사는데 하늘과 땅이 전연 다르고 하느님과 사람도 전연 달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도 없다는 서양의 분석적 사고와 다르다.

노자의 삼원적 일원론은 한국의 사상이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되는데 중국의 고유사상은 원래가 주역 음양의 이원론이 그 본체다.

노자의 근본사상은 도(道)사상인데 그것도 한국사상이 원류가 된다. 그가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도(道)요 그 도가 음양의 이원으로 갈라지는데 이때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룬다는 이원론이 주역사상이지만 그 음양이 그냥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음기와 양기가 합쳐서 다시 충기(中氣)라는 제3의 존재가 생기고 제3의 존재에서 만물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역사상과 다르다. 노자의 사상은 음양 이원론에서 음양중삼원론(陰陽中三元論)으로 발전되는데 음양중이 본래 하나에서 나왔으므로 말하자면 3원적 일원론이다.

5. 檀君古記

한국의 삼원론 사상은 단군고기(檀君古記)에서부터 나와있다. 우리 민족의 원초적 근원은 하느님(桓因)이요 그 하느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桓國)이다. 하느님과 하늘나라는 본시 하나다. 하늘나라는 곧 하느님의 몸통이다. 그러므로 고기(古記)에는 아주 먼 옛날부터 하늘나라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신화에서 맨 먼저 하느님이 계셨다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 민족은 하느님이 본시 하늘나라와 같은 몸으로 존재하고 그 가운데에 하느님의 아들 되시는 환웅님이 계시고 그 환웅님의 몸뎡이인 신선나라(神仙)도 들어있으며 또 그 가운데는 하느님의 손자 되시는 단군님이 계시고 그 단군

님의 몸뚱이인 조선(朝鮮)이라는 나라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낳으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하늘나라는 동일체다. 환웅님은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낳은 것이요 신선나라도 환웅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환웅님이 낳으신 것이 되어 환웅님과 신선나라와 동일체다. 환웅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그 지상의 여신(女神)이신 웅녀(熊女)와 결혼하여 낳으신 분이 단군인데 단군으로 인해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일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환웅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웅녀(웅은 곰이라는 동물이 아니라 신이나 상감이나 임금이나 윗사람을 의미하는 한국 고대어의 「검」에서 나온 말이다)와 결혼하여 인간인 단군을 낳았으니 여기에 천지인 일체요 삼원적 일원론이 전개된다.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니 양이요 환웅님은 땅으로 내려오시니 양이 음이 되었다. 그런데 환웅님은 본래 하늘나라에 계셨으니 양이든 또 남성이니 양이다. 그 양과 지상의 여신인 음이 합쳐서 인간 단군을 낳았다. 말하자면 하느님은 태극이요 환웅님은 양(陽)이요 웅녀는 음(陰)이요 단군은 음양이 조화된 중(中)이다. 말하자면 태극에서 음기(陰氣) 양기(陽氣)가 나오고 그 음양이 합쳐서 중기(中氣)를 이루고 그 중기되는 단군이 인류를 낳았다는 것은 노자 도덕경과 비슷한 사고방식이다.

6. 天符經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군고기(檀君古記)에는 환인·환웅 단군과 하늘나라 신선나라 조선나라의 삼원적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누가 누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것으로 하나의 실체가 저절로 자라서 삼원을 이루고 그 삼원이 본시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단군고기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대로 우리민족의 기본적 철학 사상인 천부경(天符經)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단군고기에 하느님께서 그 아들 환웅님을 지상에 내려보내실 때 천부인(天符印) 즉 신임장이라 할 수 있는 하느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늘의 표 세 개를 주셨다고 하였다. 이 천부인이 세 개라는 것이 바로 삼원론이다. 환인의 환국, 환웅의 신시, 단군의 조선이 3

원인데 천부인도 세 개이므로 우리 민족은 분명히 삼원론을 믿고 있다. 그 천부인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물형(物形)의 기본형인 둥근 것, 납적한 것, 뾰족한 것 즉 원방각(圓方角)이란 말도 있고 천지인 삼극사상이라는 말도 있고 또 옛날부터 무녀를 이 굿하는데 쓰는 용구인 거울 방울(또는 북) 칼이라는 말도 있다. 또 이 천부인은 바로 천부경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어 천부경이 하느님께서 환웅에게 내리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천부경은 1911년 계연수(桂延壽)라는 이가 묘향산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단군시대의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이도 있으나 천부경에 담겨진 내용이 삼극철학으로 단군고기에 나와 있는 사상과 노자의 사상이 그대로 들어있어 말하자면 철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꼭 오래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한국사상을 종합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천부경은 총 81자로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一)가 열한자 셋(三)이 여덟자들어 있어 삼극사상 또는 삼원적 일원론 사상의 모태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시작이나 시작이 없는 것도 하나다. 삼극으로 쪼개여도 근본은 다함이 없다. 하늘의 첫 번은 하나요 땅의 천번은 둘이고 사람의 첫 번은 셋이다. 하나가 쌓여서 열의 큰 것이 되나 어김없이 셋으로 화한다. 하늘의 둘째번은 셋이요 땅의 둘째번도 셋이며 사람의 둘째번도 셋이다. 큰 셋이 합쳐서 여섯이 되고 일곱과 여덟과 아홉이 생긴다. 셋을 움직여서 셋을 이루고 다섯과 일곱이 고리가 된다. 하나가 묘하게 넘쳐서 한번 가고 한번 오나 변하는데 쓰이되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의 근본에 근본을 잡으면 태양이 높고 밝아서 사람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하나는 끝이나 끝이 없는 것도 하나다.(一始無始一 析三極無盡本天一一 地一二 人一三 一積十鉅 無匱化三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 大三合六 生七八九 運三四成環五七 一妙衍 萬往萬來 用變不動本 本心本 太陽 昂明 人中天地一 一終無終一)

여기에서 우리는 삼극(三極)사상과 천지인 일체(天地人 一體)사상을 볼 수 있다. 주역에는 태극이 음양 양극으로 갈라진다고 하였는데 천부경에는 하나가 삼극으로 갈라진다고 했다. 이것이 중국의 주역의 음양이원론과 다른

한국의 천부경의 천지인 삼극론이다. 하나(一)는 근본(本)이요 처음(始)도 끝(終)도 없는 무궁한 존재인데 그것이 음양이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인 즉 음양중(陰陽中)의 3극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색이다. 보통 태극도(太極圖)는 음에 해당하는 푸른색과 양에 해당하는 붉은 색의 두 가지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주역사상에서 유래한 것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삼태극도라고 하여 양을 나타내는 붉은 색과 음을 나타내는 푸른색과 중을 나타내는 누른 색의 세 가지가 있는데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셋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든든하다. 둘은 자칫하면 대립적이기 쉬우나 셋은 가장 조화스럽다.

이 삼태극 모양은 우리나라 가옥의 대문이나 부채 같은 곳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천부경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된다(人中天地一)는 사상이다. 주역의 음양이원론이 자칫 하늘과 땅을 중히 여기고 사람을 그보다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으나 천부경에는 천지가 사람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고 하였으니 사람을 가장 중히 여기는 인존(人尊)사상이다.

7. 典經

전경 중의 현무경(玄武經)에서 천지인의 삼원적 일원론을 말하고 있다. 천지인신에 소문이 있다(天地人神有素文) 라고 하여 천지인이 모두 신임을 나타내고 천지의 중앙은 마음이다(天地之中央心也)라고 하였는데 이는 천지의 중앙이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요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이라고 하여 성경신은 인간의 도리인 동시에 천지 대자연의 도리라는 것을 역설했다.

증산사상은 천지인 일체사상과 인존(人尊)사상이 두드러진다. 전경 교법 2장 56절에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더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이니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전통사상인 단군사상과 천부경 사상을 이은 것이다. 말하자면 원시반본(原始返本)이다.

증산의 천지인 일체사상과 삼원적 일원론은 대순진리회의 목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정신과 인간과 세계가 하나를 이루어 무자기 하는 정신과 신선이 된 인간과 천국이 된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고 있다. 아무리 무자기의 정신개벽이 이루어져도 지상신선이 못되었으면 그것은

정신개벽이 된 것이 아니며 아무리 지상신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상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지상신선이 된 것이 아니다. 정신과 인간과 세계는 신명과 사람과 사회인데 곧 천지인이다. 우리는 무자기의 정신개벽을 살피는 자리에서 하느님이나 신명이라고 하여 저 먼 쪽 하늘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정신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천존 지존 보다 인존이 중요하다. 그러나 천지인이 본래 하나인 까닭에 인존이라고 하여 천존이 천비(天卑)가 되고 지존이 지비(地卑)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존이면 자동적으로 천존이 되고 인존이 된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구의 대립적 이원론 사고에 시달려왔다. 그러한 이분적 사고방식은 서로가 적대시하고 싸우게 마련이다. 이분적 사고방식은 하필 서구사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양의 음양사상이나 이기(理氣)사상에서도 이원론적 색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조 시대의 성리학의 주리파와 주기파의 대립 나아가서는 사색당쟁(四色黨爭)에까지 벌어지게 된 것은 그 이원적 대립때문이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본래의 일원적 삼원론으로 돌아가 대립 대신 조화를 찾을 때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원론의 폐해를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이원이라고 하여 반드시 대립적 투쟁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서양의 변증법 사상에서 온 것이다. 동양의 주역의 음양이원사상은 이원론이긴 하지만 원래는 대립적이 아니고 조화적이며 상극적이 아니고 상생적이다. 그것이 잘못 이해된 데에서 여러 가지 비극이 생겼다.

Ⅲ. 地上人間의 여러 형태

1. 普通人

인간은 본래 지구적 생물이다. 지구와 다른 천체(별)에 사람과 같은 생물이 살고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 지구 외의 천체를 우주 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지구이외의 외계에서 가끔 이상한 것이 날라와서 그것을 미확인비행물체(비행접시 - U·F·O)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비행접시에서 내린 생물은 사람과 비슷하고 사람보다 지

능이 더 발달한 것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고 영혼만 남으므로 하늘나라에는 영혼만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하늘 나라에는 극락이나 천당으로 불리는 아주 살기 좋은 곳도 있고 무서운 맹수나 인간을 죽이는 기름가마 같은 독물이 있는 지옥이라는 곳도 있는데 사람이 죽은 뒤 극락이나 천당이나 지옥의 그 어느 곳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지구에 살았을 때의 마음 먹음과 행실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하늘 나라는 육체가 없는 영혼들이 가는 곳이지만 하늘나라에도 비록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적 수준에서는 인간이 육체적 생명을 가지고 사는 곳은 지구 뿐이요 그러므로 인간은 우주적 존재라기 보다도 지구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구에는 인간뿐 아니라 다른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으며 광물도 있다. 사람은 그 목숨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의식주의 생활을 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는 것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요 옷을 해입고 집을 짓는데에는 동식물 외에 광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생물은 살아남기 위하여 의식주생활이 필요하지만 같은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도 사람과 동물과 다르고 또 사람의 인종과 문화와 경제의 차이도 다르다.

생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에는 의식(意識) 즉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동물도 식물과 같아진다. 그 마음을 쓰는 정도는 동물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보통 동물들은 본능과 지각과 감정과 의지(本能, 知覺, 感情, 意志)를 가지는데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그저 지정의(知情義)의 본능적 의식을 가지는데 그치지만 사람은 더 나아가서 그 본능을 거룩하게 하고 아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느끼는 것을 아름답게 하고 행하는 것을 착하게 하는(聖眞美善) 가치적(價值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일정하지 않다.

또 생물 그 중에서도 동물들은 혼자서 사는 일이 없고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가족과 같은 아주 간단한 사회부터 국가와 같은 아주 복잡한 사회까지 이루고 산다.

다른 동물들은 벌과 개미처럼 조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그저 별다른 의식없이 몰려 살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적 생활을 경제활동으로 조직화시켜서 살고 정신적 생활도 문화활동으로 조직화시켜서 살고 이해관계나 의견대립도 정치활동으로 조직화시켜서 산다. 동물들은 지정의의 본능적 의식은 있지만 진선미의 가치적 의식이 없는 것 같이 집단생활에 있어서도 동물들은 그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 따름이지만 인간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좀더 자유(自由)스럽게 좀더 평등(平等)스럽게 좀더 평화(平和)스럽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바라면서 사는데 이와 같이 좀더 잘 살기 위한 사회생활의 가치를 사회적 가치 또는 정의(正義)라고 부른다.

지구상에 사는 인간은 멀리 다른 동물과 별 다름이 없는 자연적(自然的) 생활인 의식주 생활과 다른 동물과는 달리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적(人間的) 생활과 자유 평등 평화의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적(社會的) 생활을 하여가고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보통사람은 누구든지 의식주의 본능과 진선미의 가치와 자유 평등 평화의 정의를 추구하지만 그 정도가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나 교육수준이나 경제수준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그 정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통인이라는 것은 적당한 자연적 생활, 가치적 생활, 정의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理想的인 人間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이상(理想)을 가지고 있다. 동물은 그저 현상(現狀)에 만족하지만 인간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상태를 바라고 노력한다.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의 영장(靈長)으로 진화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이냐 하는 것은 동서가 다르고 고금이 같지 않다. 그러나 그 대강 줄거리는 비슷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다. 옛것을 전연 버리는 곳도 있는데 그러나 각 지방 각 시대를 통하여 고전적(古典的)으로 지켜 내려온 이상상이 아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고전적이라고 하더라도 진보하는 현대성(現代性)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儒敎의 理想人像

유교에서는 인간 완성을 강조하고 모든 학문의 기초를 인간을 완성시키는 데 두고 있다. 공자가 생각한 이상인은 성인(聖人)이다. 성인은 지인용(智仁勇)을 고루 갖추고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도덕적 인간이다. 공자는 과거의 성인인 요순우탕문무주공(堯舜禹湯文武周公)을 모범으로 삼았으며 제자들도 성인이 되도록 가르쳤다. 도덕이 성인만 못한 사람은 현인(賢人)이라고 하였고 성현까지 가지 못했으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군자(君子)라고 하였고 보통사람은 늘 군자가 되기를 바랐다. 도덕이 높은 군자에 대해서 도덕이 낮은 저질의 사람은 소인(小人)이라고 하여 낮추어 보았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지은 통감(通鑑)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재주와 도덕이 다같이 갖춘 사람은 이를 성인이라 하고(才德全盡 謂之聖人) 재주와 도덕이 다같이 없는 사람은 이를 어리석은 사람 즉 우인(才德兼亡 謂之愚人)이라 한다.

도덕이 재주를 이기는 사람은 이를 군자(德勝才 謂之君子)라고 하고 재주가 도덕을 이기는 사람을 소인(才勝德 謂之小人)이라 한다. 무릇 사람을 취하는 법이 적어도 성인 군자를 얻어 이를 같이 못할 바에는 그 소인을 얻는 것은 우인을 얻는 것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즉 군자는 재주를 끼고 착한 일을 하지만 소인은 재주를 끼고 악한 일을 한다. 재주를 끼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착함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재주를 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것이 또한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착하지 않는 것(不善)을 하고저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 지혜가 넓지 못하고 힘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은 사람이 꺼리는 바이요 재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바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친하기 쉽고 꺼리는 사람은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런고로 나라를 다스리고 집을 다스리는 사람은 적어도 재주와 도덕의 분수를 자제하여 선후(先後)하는 바를 알면 또 무엇 때문에 사람을 잃을까봐 걱정할 필

요가 있겠느냐고 하였다.

이로 보면 유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상인의 기준은 그 도덕적 높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佛敎의 理想人像

불교에서는 인간은 본래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태어났으나 세상먼지에 가리고 욕심이 생겨 그 본성이 흐려져 더럽혀져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먼지를 씻어내고 본성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한 작업을 마친 사람은 미로(迷路)를 빠져나와 대각(大覺)을 이룬 사람으로 성불(成佛)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이상인상은 대각한 부처이다. 그 부처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수행이 필요한데 그 수행과정에 따라 교과가 달라지고 그 수행정도에 따라 인간의 완성도도 달라진다.

불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의 중생(衆生)으로 세속적 번뇌에 시달려 고통스럽게 지내지만 대각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 진리는 영원하고 무한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온 우주에 충만하여 있는데 그것을 법(法)이라고 한다. 범인(凡人) 즉 중생이 법을 깨닫고자 수행을 시작한 사람이 승려(僧侶)인데 승려는 중생을 지도하는 스승이다. 승려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수도하여 부처가 되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부처가 되기는 그리 쉽지 않지만 끊임없는 수도를 계속하여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사람은 보살(菩薩)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아직 부처라고 할 수 없어도 불도를 열심히 닦아 부처에 가까워진 보살도 불교적 이상인상의 하나가 된다. 그리고 불도를 닦기 위하여 세속적 욕심을 버리고 출가한 승려도 불교의 이상인상의 하나가 되어 불법승(佛法僧)을 삼보(三寶)라고 한다. 그러나 꼭 출가를 하여야만 대각하는 것은 아니고 출가하지 않고 재가신도(在家信徒)로서 불법을 닦는 사람은 거사(居士)라고 하는데 거사가운데에도 부처나 보살 같은 완성인이 많다.

5. 基督教의 理想人像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하느님의 독생자임으로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과 같이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 된다.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신앙의 대상이지만 절대적 대상이 아니라 상대적 대상이다. 즉 기독교에서는 하느님과 인간은 영구히 다른 존재로 하느님은 본래부터 존재하시나 인간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은 영원히 하느님이어서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영원히 인간이어서 하느님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은 절대적 숭배대상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간은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각을 이루면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은 상대적 신앙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느님과 같은 착한 것으로 만드셨는데 악마(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의 계명을 어겨 타락한 후에 인성이 악해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인간을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지 않으면 인간은 착한 인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인간으로서의 이상상은 먼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중생(重生)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을 독실하게 믿는 것이 가장 완전한 인간이다. 이에 대해 불교에서는 인성이 본래 선하므로 그것이 세속에 물들어 더러워졌더라도 자기의 수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불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불교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정진(精進)이 중요시된다. 말하자면 불교는 자기 힘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력신앙(自力信仰)인데 비해서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느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되는 타력신앙(他力信仰)이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기도(祈禱)가 가장 중요하다. 말하자면 기독교에서의 이상인상은 늘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6. 이슬람교에서의 理想人像

이슬람교는 유일 절대신인 알라를 믿는 종교인데 마호메트가 창설한 것이

다. 알라는 전지전능한 창조신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낳은 것도 아니다.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이 근본신조로 되어 있고 마호메트는 신이 아니고 알라의 사자(使者)에 불과하다. 마호메트는 알라의 계시를 천사(天使) 지브릴(gibril)을 통해 받아서 「코란」(Koran)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의 최고의 경전이다. 여기에는 신앙의 절대성과 계율(戒律)의 엄격성이 특징이다. 알라에 귀의한다는 것은 다만 소극적으로 이슬람의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슬람의 신앙권을 확대하는 의욕을 포함한다. 그들은 이교(異敎)의 투쟁경(鬪爭境)에 대하여 이슬람교의 평화경(平和境)을 넓히고자 하는 태도 즉 성전(聖戰)의 담당자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포교와 전쟁을 결합하여 이교도에 대하여 「코란」이나 또는 칼이나의 양자택일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다만 속마음의 귀의로 만족하지 않고 엄격한 외부적 의식에 의한 보장을 더하였으니 즉 수많은 계율이 그것이다. 이 계율은 특별한 종교적 계율이기 보다는 오히려 일상생활의 원리가 되고 있다. 이리하여 이슬람교는 그 깊은 교리가 생활화되고 행동화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방면에 깊이 숨어들었다. 보통의 종교는 현실도피적이요 소극주의인데 대하여 이슬람교는 현실 극복적이요 적극적 의욕을 가지고 아라비아인들의 단결을 촉진시켰다. 또 보통의 종교는 정치회피적이나 이슬람교는 정치 그것을 목적으로 출현하여 정교일치(政敎一致)에 인한 강력한 정치수행이 그 본래의 의도이다. 말하자면 소위 신정정체(神政政體-Theocracy)임이 특색이다. 그리하여 「코란」은 이슬람교도들의 생활의 조석(朝夕)을 규정하는 계율적 분야만 규정한 단순한 형식적 법규와 전생활면에 관계를 가진 신앙적 체계까지 개입하여 「코란」은 종교법인 동시에 세속법(世俗法)이다. 즉 이슬람의 이름 아래 종교, 윤리, 법, 정치는 일체적으로 종합 통일되어 지배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앙고백, 기도, 시여(施輿 - 일종의 10분의 1 세금), 단식(斷食), 순례(巡禮)의 다섯 가지는 이슬람의 기둥이라고 하여 중시되었다.

이슬람교는 평등을 존중하여 이슬람교도인이상 사회적 계급과 인종에 의한 차별을 초월하여 법률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하여 승속(僧俗)의 구별도 없다. 불교에서의 승려나 기독교에서의 신부나 목사같은 종교적 지도계급도

따로 없다. 이슬람에서는 신앙이 곧 도덕이고 종교가 곧 정치이며 이슬람교의 최고권위는 곧 국가의 최고 주권자다. 종교적 지도계급이 따로 없는 이슬람사회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일체이기 때문에 종교적 계율이 곧 법률적 규범이 된다. 그러므로 이슬람교의 이상인상은 종교적 계율 즉 법률적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7. 선도의 이상인상

선도(仙道)는 신선(神仙)을 믿는 종교인데 본래는 한국에서 발생하여 중국과 일본으로 번져 나가서 중국에서는 도교(道敎)가 되고 일본에서는 신도(神道)가 되었는데 선도에서의 이상인상은 곧 신선이 되는 것이다. 유교에서 이상인인 성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불교에서 이상인인 부처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기독교에서 이상인인 죄를 회개하고 중생(重生)하여 성결(聖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이슬람에 있어서처럼 코란의 계율을 잘 지키는 일도 쉽지 않은 것처럼 선도에서 신선이 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대단히 힘든 수도가 필요한 것이다.

IV. 神仙이란 무엇인가

1. 神仙思想의 原流

동양에서는 신선(神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선인(仙人) 또는 선녀(仙女)라고도 한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생각되고 신선이 되면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어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되는데 그 신선이 사는 곳이 곧 선경(仙境)이다. 선경은 불교의 극락이나 기독교의 천국에 해당된다.

동양에서는 사람을 칭찬하는데 신선같다 선녀같다고 하고 또 매우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장소는 선경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신선에 해당하는 영어는 과연 무엇일까?

영어에서는 우주의 절대자는 하느님 또는 신(神)이다. 신의 측근에서 신을 받들고 신의 사명을 전하는 자를 천사(angel)라고 하는데 대개 아름다운 여

인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신에 대립되고 신의 착한 것과는 달리 성품이 악하고 신의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악마(惡魔) 또는 사탄(satan)이라고 한다. 그 외에 동화적(童話的)인 요술나라(fairy land)에 사는 요정(妖精 - fairy)도 있고 마법사(魔法師 - wizard)나 요술쟁이(妖術匠 - juggler)도 있다.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없어진 뒤에 남은 영혼(靈魂 - soul, spirit)이라는 말이 있고 같은 영혼이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영혼은 유령(幽靈 - ghost) 또는 악령(惡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동양사람이 생각하는 신선은 그 의미가 다의적(多義的)이지만 완전히 육체를 떠난 신이나 영혼과는 달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그 육체는 좀처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되고 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산 인간은 아니다. 산 인간은 육체와 영혼은 같이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육체는 죽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육체가 죽지는 않고 불로장생(不老長生)한다. 그렇다고 신선은 신이라고 할 수 없다. 신이라고 하면 전연 육체가 없는 관념적 존재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 또 천사라고 할 수도 없다. 천사는 대개 아름다운 여자가 신에게 봉사하는 존재인데 신선은 그 자체가 독립적 존재로 신과 거의 비등한 격(格)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천사는 주로 아름다운 여자로 되어 있지만 이슬람교에서는 남자인 예수도 마호메트도 천사로 되어 있다. 또 신선은 요정이나 요술쟁이나 마법사와도 다르다. 요정도 하나의 영적 존재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존재보다는 주로 동화의 세계와 같은 환상적인 존재요 요술쟁이와 마법사는 신선의 도통(道通)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람을 속이는 것이므로 신선과는 다르다. 신선은 진선미의 극치를 이룬 인간의 최고 이상형이므로 악의 화신인 악마나 사탄과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양의 신선에 해당하는 말은 좀처럼 서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이 신선사상이 동양의 독특한 사상인 까닭이다. 그래서 서양사람이 신선이란 말을 번역하는데 고심하고 있어 그저 영혼(Soul, Spirit)이라고 하던지 또는 신선이라는 한문자인 신선 선(仙)자가 사람인(人) 변에 뫼산(山)으로 되어 있고 또 신선이 사는 곳이 산이므로 신선을 산에 사는 사람(Mountain Man) 또 산에 사는 영혼(Mountain Spirit) 또는 숨어사는 사람

(Hermit) 등으로 번역하기로 하는데 동양의 신선의 의미를 그대로 잘 나타내지는 못한다.

동양사람의 신선개념은 신(神)과 사람(人)을 종합한 개념으로 신선의 특징은 첫째 현실적 존재요 둘째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진 존재요 셋째는 결코 병들거나 죽지 않는 존재요 넷째는 속세(俗世)를 떠나 주로 경치 좋은 곳에 사는 존재요 다섯째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존재로 인간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하늘나라는 육체가 전연 없는 영혼만의 존재인 신들이 사는 곳이요 신선은 하늘나라에도 살고 하늘나라가 아닌 지상에도 사는 존재다. 지상에 사는 인간에는 세속적인 번뇌에 고통하는 속인(俗人)도 있고 세속적인 번뇌를 벗어나 늘 즐겁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선인(仙人)이 있는데 산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아서 하늘에 가까워서 신성한 곳이지만 산아래 골짜기(谷)는 하늘에서 떨어진 곳이므로 여기에 사는 사람은 골짜기 사람(俗) 즉 속인(俗人)이라고 하여 알잡아 보았다.

사람이 육체적 생명을 다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즉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고금동서의 인간이 가진 가장 궁금한 것이었다.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생전에 어떤 곳에서 살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열대에 속하여 매우 더운 곳에 살고 있는 인도 사람은 지상의 현실 생활이 매우 고통스러워 그들은 이 지상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고통이 없는 해가 저서 시원한 서쪽 즉 서방정토(西方淨土)에 극락이 있다 생각하고 그 극락에 가기를 원하였다. 또 사막의 살벌스러운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혜택받지 못한 곳에 사는 것이 하도 괴로워 그들은 무슨 죄값으로 그러한 불행을 겪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루바삐 그 최악의 땅을 벗어나 하느님이 계신 낙원인 천당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다. 그런데 한국인은 어떠한가? 한국은 백두산을 비롯하여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의 세계에서 가장 경치좋은 이른바 삼신산(三神山)이 있으며 기타의 산수가 수려하여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 행복을 느끼고 하루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장수하기를 바라고 죽기를 원치 않았다. 이 아름다운 풍토가 한국에 신선사상을 낳게 하였다. 죽지 않고 오래 살고싶다는 간절한 염원이 곧 신선사상이다.

같은 동양이지만 중국은 경치 좋은 산이 많지 않고 거기다가 황하가 범람

하고 몽골의 사막풍이 불어와서 그야말로 황진(黃塵)의 세계다. 그런 황진의 세계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인은 인도인이나 유대인처럼 현실도피적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죽어서 극락이나 천당가기보다는 살아서 더 경치 좋고 더 살기 좋은 곳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이 중국에는 없으나 발해(渤海)건너에 신선이 사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남동녀(童男童女) 5백명을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삼신산에 보냈는데 그 삼신산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곳이라고 여겨진다. 제주도 서귀포 정방폭포에는 진시황의 사자인 서시(徐市)가 지나갔다는 흔적이 남아 있다. 같은 동양이지만 일본은 높은 산은 많으나 화산이 폭발한 것이 되어 깨끗한 물도 먹기 힘들고 살기도 어려워 그들이 신선사상을 가지기에는 풍토가 그다지 좋지 않다. 오직 한국만이 산자수명(山紫水明)하여 신선사상이 발생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신선을 믿는 종교는 선도(仙道)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도교(道敎)가 신선을 믿는다. 중국의 도교는 소박한 민간신앙에 중국의 시조인 황제(皇帝)와 옥황상제(玉皇上帝)의 화신인 노자(老子)와 대철학자인 장자(莊子)의 사상이 합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는 장소를 결코 선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경을 딛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황제는 동쪽 청구(靑丘)나라에 와서 자부선인(紫府仙人)을 만나 선도를 배워가서 중국의 도교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도교를 또 선도(仙道)라고 불렀다. 선도라는 것은 그 발생지가 한국인데 중국으로 들어가 도교로 발달되고 또 선도라고 일컬어져서 그 도교와 선도가 다시 삼국시대에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때 삼국에 불교 유교와 더불어 중국에서 들어온 선도도 성행했다. 그런데 신라의 지각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선도가 들어오기 전에 신라의 고유선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온 선도외에 신라국가에서 원초적으로 발생한 고유선도를 국선도(國仙道)라고 하였다. 이는 마치 서양음악 즉 양악(洋樂)을 그냥 음악이라고 하고 우리 고유의 음악은 국악(國樂)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때 신선사상의 본거지는 한국임이 분명하다. 신라 최치원(崔致遠)이 난랑비서(鸞郎碑序)에 「나라에 고유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자세하다(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說教之源 備祥仙史)」라고 한 것은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신선의 역사 즉 선사(仙史)이니 선도가 우리의 고유사상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을 밝힌 것이다. 한국의 신선사상이 중국의 도교사상 또는 선도에 영향을 준 것처럼 일본에도 영향을 주어 신도(神道)를 발생시켰다.

2. 한국의 신선사상

우리나라의 신선사상은 삼국사기 권제17 고구려 본기 제5 동천왕 21년 평양복도조(三國史記 卷第十七 高句麗本紀第五 東川王 二十一年 平壤復都條)에 「평양은 본래 선인왕검의 집이다(平壤本仙人王儉之宅也)」라고 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군주인 단군을 「선인」으로 표현한 것에 비롯하여 여러군데 신선사상이 나온다. 최치원의 「난랑비서」도 삼국사기 권제4 진흥왕 37년(三國史記 卷十四 眞興王 三十七年)에 나온다. 또 삼국유사 단군고기(三國遺事 檀君古記)에는 하늘의 아들 「환웅(桓雄)이 하늘에서 부하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 신시를 만들었다.(雄率徒三千 降於太白山頂神檀樹下 謂之神市)」고 하였는데 이 신시가 바로 신선들의 나라다. 신선은 위로는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는 신으로부터 육체와 영혼을 함께 가지고 불로장생하는 인간까지도 포함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조이신 단군은 육체를 가지신 신선이요 그 신선의 나라인 신시를 건설하신 환웅은 처음에는 육체가 없는 신이었다가 웅녀와 혼인하기 위하여 임시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변했다가 다시 육체가 없는 영혼만의 신선이 되셨고 육체를 가진 단군은 나중에 아사달(阿斯達) 산에 품어 산신(山神)이 되셨다고 하니 단군은 육체를 벗어 영혼만의 신이 되셨다. 신선은 원래가 영혼과 육체를 같이 가지고 있으나 육체를 벗고 영혼만의 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선인 이상 육체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숨어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3. 甌山의 神仙思想

전경에 나타난 증산의 신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경 행록 5장 25절에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서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였고 공사 2장 3절에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 오선위기혈(回文山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국운을 돌리려 함이다. 다섯 신선중 한 신선을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요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먹으려 하므로 날자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 지금 최수운을 청하여서 증인으로 세우고 승부를 결정코저 함이니……상제께서 백지에 「결군굿 초란이패 남사당 여사당 삼대치」라 쓰고 「이 글이 곧 주문이다. 외울 때에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니 조심하라」 이르고 「이 글에 곡조가 있나니 만일 외울 때에 곡조에 맞지 않으면 신선들이 웃으리라」 하시고……」 하였고 전경 교법 3장 16절에 「옛날에 어떤 탕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방탕하여 보낸 허송세월을 회과 자책하여 내 일생은 이렇게 헛되게 보내어 후세에 남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요 지금부터라도 신선을 만나서 선학을 배우겠노라고 개심하리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심신이 상쾌해지더니 홀연히 하늘에 올라가 신선 한분을 만나니라 그 신이 네가 이제 뉘우쳐 선학을 뜻하니 심히 가상하도다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치리니 정결한 곳에 도장을 짓고 여러동지를 모으라고 이르니라. 방탕자는 그 신선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방탕을 알고 따르지 않는지라. 겨우 몇사람만의 응락을 받고 이들과 함께 도장을 차리던바 갑자기 천상으로부터 채운이 찬란하고 선악소리가 들리더니 그 신선이 나타나서 선학을 가르쳤도다」라 하셨다. 이는 누구든지 정성만 있으면 선도 수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 전경 교운 1장 41절에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는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요」 하셨다. 또 전경 예시 73절에는 「신도(神

道)으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착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참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 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쁨이 열리리라」 하셨다. 이는 신선이 되는 데에는 하필 선도만 수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유불선 어떤 도이든지 정성껏 하면 모두 연결되어 도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전경 행록 1장 10절에는 「상제께서 탄강하실 때에 유달리 밝아지는 산실(産室)에 하늘로부터 두 선녀가 내려와서 아기 상제를 모시니 방안은 이상한 향기로 차고 밝은 기운이 온 집을 둘러싸고 하늘에 뻗쳐 있었도다」 하였다. 이는 신선이란 꼭 남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신선이 되고 신선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음양의 도수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

전경에 나타난 증산의 언행은 신선사상을 매우 넓게 파악하여 유불선은 물론 서화사상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큰 구상을 보였다.

증산의 신선사상은 한민족으로 원시반본(原始返本)되어 먼저 증산의 심층 의식에 잠재해 있는 단군이래의 신선사상을 최근의 세계사조도 포함하여 대단히 커다랗게 전개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V. 地上神仙思想의 現代的 意義

1. 人間眞面目的 發揮

인간은 본래 착한 성질을 가진 생물로 만물의 영장노릇을 해왔다. 그러나 인간에게 욕심이 생기고 생존경쟁이 심해지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속물로 타락하여 버렸다. 오늘날 인간의 추한 자태는 동물만도 못한 때가 많다. 동물은 여간해서 자기 동족을 죽이지 않는데 인종적 편견 민족적 이해 국가적 패권 다툼으로 인류는 벌써 여러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벌였고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 되고 앞으로도 좀처럼 그칠 것 같지 않다.

인류의 이와 같은 투쟁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과학의 발달은 인류의 살생무기를 더욱 진보시켜 인류는 그 스스로 만든 문명이기를 전쟁도구화하

여 인류전체가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문명의 발달로 환경은 파괴되고 전쟁은 더욱 가열해져서 인류가 결국 멸망하고 만다면 과학의 발달도 문명의 진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제 인류는 겸허하게 자기 반성에 나서 인간의 착한 본성을 회복하여 인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생물과 무생물이 모두 공존하고 상생하는 단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 제일 급한 일은 인간의 선성을 회복하여 인간의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서 인간의 진면목을 발휘해야만 한다.

인간의 진면목을 발휘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도덕 운동도 있었고 종교 활동도 있었다. 종교는 특히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고 인간의 착함을 드러내는데 많은 힘을 쏟아와서 그 공로가 크다. 그러나 종교가 믿고 있는 절대자 또는 신 또는 하느님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종교간에 갈등이 생겨 인류의 투쟁이 더 가열해지는 기현상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제 인간은 그 인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을 괴롭다거나 또는 최악의 땅이라고 저주하면서 하루 빨리 이 지구를 떠나 피안의 세계, 천상의 낙원으로 가기전에 먼저 이 지구에서 잘 살고 지구를 낙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인류는 지금까지 실제 가보지도 못한 천상낙원만을 대망하는 바람에 지상을 너무 소홀히 하였지마는 이제 지상도 천상 낙원 못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 거기에서 잘 살도록 하여야 한다. 지상선선사상은 종교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종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지상의 낙원을 만들겠다는 사상인데 이것은 꼭 선도(仙道)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요 선도를 중심으로 모든 다른 종교들의 소망도 다 같이 달성하자는 뜻이다. 선도의 특색은 이와 같이 다른 종교들을 모두 포함시키는 데에 있다.

최치원(崔致遠)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우리 고유사상은 풍류도(風流道)요 풍류도의 원천은 선도(仙道)라는 것을 밝히고 이 선도는 유교 불교 도교(儒敎 佛敎 道敎)의 삼교를 다 포함(包含)한다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포함사상이 인간의 진면목이요 그 진면목을 발휘하면 인류의 갈등이 무산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現實과 理想의 調和

인간은 현실 속에 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좀 더 잘 살기 위하여 이상(理想)을 가진다. 동물 가운데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 현실보다 더욱 좋은 상태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사람 뿐이다. 그러나 그 이상이 다르므로 갈등이 생기는데 이상이 다른 것은 그 이상이 가시적인 지구적 현실보다도 불가시적인 천상에서의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서 견해의 차가 많아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천상낙원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지상낙원건설에 인류가 힘을 쓰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현실의 토대위에서 생각하는 이상이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이상을 가진 동물로 그로 인하여 문명을 발달시켜 왔지만 그 이상의 차가 심하여 의견대립이 생기기 쉽다. 인류가 이상을 가지지 못한다면 한낱 동물의 처지에 머무르는데 그치겠지만 이상을 가짐으로 인류는 발달해왔다. 그러나 그 이상의 차이로 인류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상이 너무 높으면 전연 실현 가능성 없는 공상에 그친다. 그러한 공상적 이상 때문에 인류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실현가능한 이상 즉 현실에 토대를 두는 그러한 이상을 제시하여 현실과 이상이 조화를 이루면 인류가 접근하기가 쉽다. 지상 신선사상이 그러한 모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천상에서의 이상은 인간으로서는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리공론으로 흐르고 그 공리공론으로 인하여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러한 현실을 초월한 이상보다도 현실인 이 지구를 토대로 하는 이상사회나 이상인의 모델이 개발되면 그러한 공리공론적인 싸움에서는 해방될 수 있다.

지상신선사상은 인간의 사후나 영혼의 문제보다도 현실적으로 지구에서 살면서 마음이 편하고 육체가 편한 신선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신선이 된다고 하여 날개를 타고 하늘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면서도 하늘에 오르내리는 것 같은 무애(無碍)스러운 자유를 누리고 다른 인류와 같이 상생하고 다른 동물과 같이 즐거워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신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인간이 속스러운 욕심에서 해방되어 양심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제모습을 찾으면 천지 대자연과 합일되어 천지와 더불어 호흡하

고 만물과 더불어 즐기게 되니 이 어찌 신선생활이 아니겠는가? 하느님이나 신과 같은 절대자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고 자기 마음 가운데서 찾으면 그 찾은 사람이 곧 신이요 하느님이요 절대자요 신선이다. 신선이라는 말은 인간과 신을 통합하는 존재로 쓰이는데 인간은 인간인 채로 신이 될 수 있고 또 신은 신인 채로 인간으로 될 수 있다. 이것이 지상신선이다.

그 동안 많은 성인이 나와서 종교를 창설하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피안적(彼岸的)인 구원이 많았다. 이제는 현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자체 내에서 구원을 받고 행복해져야 한다. 그것은 이 지구에 육체를 가진 채 살면서 신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신선사상은 가장 현실과 이상이 조화된 사상이다. 너무 현실에 집착하면 인간은 속화(俗化)하여 이기적인 본능으로만 사는 동물로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현실을 도피하고 이상만으로 산다면 그것은 가공적(架空的)이요 공상적(空想的)이 되어서 행복을 맛본다 하여도 환상적(幻想的) 일시적(一時的)일 뿐이요 생활적 영구적인 것이 못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의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양심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본성을 찾으면 그 자리가 바로 신선의 자리다. 신선의 자리는 결코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신선의 자리는 현실을 달관하고 더 큰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킨 지상신선사상이다.